

# 사회복지교육반세기의 회고 : 개론교과서 중심으로

최 원 규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 I. 서론

한국에서 사회사업이 대학에서 교육된 것은 1947년 이화여대에 기독교사회사업 학과가 설치되면서부터이므로 한국사회복지 대학교육은 대략 반세기의 연륜을 지닌다. 그간 대학 수와 입학생수 그리고 교수 수와 같은 외형적인 측면에서 사회복지대학교육이 크게 확대되었다. 사회사업학과를 개설한 대학 수는 50년대에 3개교, 60년대에 4개교, 70년대에 4개교 등으로 점차 증가하여, 70년대 말까지 12개 대학에서 사회사업이 교육되었다. 1995년 현재 46개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이 교육되고 있는데, 이들 교육기관들은 대부분 1980년대(24개)와 90년대(10개)에 만들어졌다. 사회복지 교육기관의 입학정원도 1947년 20명에서 최근에는 2,300명을 상회할 정도로 확대되었고, 사회복지교수수도 1995년 현재 250명 이상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변화가 적지 않았다. 미국의 대학원 과정을 거의 그대로 도입함으로써 미시적인 사회사업기술을 중시했던 초기의 교과과정으로부터 다소 벗어나 오늘날에는 거시적인 방법론들의 비중이 초기에 비해 높아졌다. 사회복지대학교육을 위한 교재에서도 놀라운 양적 팽창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1950년대 단 1종의 개론교과서가 있었던 데 비해 오늘날까지 20종이 넘는 개론서들이 발간되었다. 케이스워크, 그룹워크, 지역사회조직론 등의 미시적인 방법론 교과서들도 양적·질적으로 발전했으며, 사회복지정책 관련 교재들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종다양하게 발간되고 있다.

교수되는 내용에 있어서도 변화가 보이고 있다. 과거 정신분석학이론에 입각한 사회복지의 미시적 방법론에서도 새로운 외국이론의 끊임없는 소개와 도입, 실천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교육의 성과(산출)에서도 변화가 관찰되고 있다. 예컨대 1960년대 말까지 사회사업교육을 받은 졸업생들의 일부만이 의원단체나 기타 사회사업시설·기관에 취업했고, 여타 졸업생들은 전공과 무관한 타분야에서 일자리를 찾았다. 졸업생들이 타분야에서 일자리를 찾는 경향은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지만, 사회복지전문요원의 배치, 사회복지관의 증설 등에 따라 전공관련 진출자의 절대 수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증가하였다.

외형적으로 보면 한국사회사업(복지) 교육의 저변은 과거에 비해 크게 확대되었

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사업(복지)교육의 내면에 있어서도 충실한(?) 발전을 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평가가 내려지지 않고 있다. 사회문제의 과학적인 해결을 위한 이론과 기술을 교육한다는 사회복지교육의 근본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한국사회사업교육의 현안문제들은 다종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교육목표에 관한 문제, 교육방법에 관한 문제, 교수진에 관한 문제, 연구경향에 관한 문제, 서구이론의 한국적 적용의 문제 등등이 그 예들이다. 이들 문제들에 대해서는 기왕에 다소 토론되었고 논의되었으나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교육교재의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된 바 없었다. 한국사회복지학을 진단하기 위한 이번의 학회에서 교육교재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위에서 예로 든 현안문제들에 관한 보다 진전된 논의를 위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사회사업(복지)교육 교재를 전반적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회사업(복지) 교육교재 전반을 다룬다는 것은 연구자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사회사업(복지) 교육과정에서 길잡이 역할을 하는 <개론>교과서만을 다루고 있다.

이제까지 한국학자에 의해 집필되어 발간된 사회사업 개론교과서들은 20여종에 이른다. 최초의 개론서는 단기 4288년(1955년)에 김학묵에 의해 집필된 [사회사업개론]이다. 두 번째로 발간된 개론서는 1962년 노창섭이 집필한 [사회사업개론]이며, 다음이 1970년에 김덕준·김영모·이명홍·지윤·강만춘 5인이 집필한 [신사회사업개론]이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각각 1권씩 발간되었던 개론서들은 1970년대에는 3종류, 1980년대와 1990년대에 5-6종류씩 발간되었다. 덧붙여 외국의 개론서들도 번역되었는데, 사회복지개론서의 고전이랄 수 있는 Friedlander & Apte의 저서가 부분적으로 번역되었고, 여러 종의 일본서적이 번역되었다.

한국에서 활용된 개론서들은 위에서 언급한 저작들 외에 원서들도 다수 있다. 1980년대에 이르러 국내학자들의 개론서가 쏟아져나오기 전까지 미국에서 발간된 원서들이 개론서로서 활용되기도 하였는데, Friedlander(1955, 1964, 1968, 1974 등)가 대표적이다.

한편 이 원고를 집필하기 위해 발표자가 전국 20여개대학을 대상으로 전화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번학기(95년 1학기)에 개론서로서 8종의 저서가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인협(1986), 김영모(1991), 김만두·한혜경(1993), 김상규·전재일(1994), 손준규(1992), 현외성 외 4인(1993), 신건희(1992) 등이 국내학자들에 의한 저작이며, 번역서로서는 송정부(1992)가 그것이다.

개론과목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강의가 주교재 외에 부교재 또는 참고문헌을 부수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개론서만을 두고 개론교육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한 면이 있다. 즉 개론과목을 교수함에 있어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교육하는가, 강의계획서, 과제, 강의방식, 평가방식 등은 어떠한가를 고찰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개론교육에 관한 여타의 정보를 입수할 만한 시간적·현실적 여건의 미비로 개론서의 내용만을 다루게 되었다.

## II. 개론서들의 내용분석을 위한 관찰표

현재까지 국내학자들에 의해 집필·발간된 개론서는 총 15권 이상이며, 국내에서 활용된 개론서-국내외를 불문하고-들은 20여종이 넘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서 개론서의 권수를 정확히 계산하지 않은 것은 관점에 따라 특정의 저작이 개론서로 분류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정 때문이다<sup>1)</sup>.

한편 개론서의 시대적 비교와 논의의 간결화를 위해 이 글에서 내용분석하고자 하는 개론서들은 다음의 <표1>에 제시된 저작으로 한정하였다. 이미 고전이 된 김학묵의 개론서와 노창섭의 개론서 등을 분석대상으로 한 것은 개론서의 내용을 시계열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것이고, 1990년대에 발간된 여타 개론서들(김상규·전재일, 1994, 손준규, 1992 등)을 제외한 것은 분석의 간결화를 위한 것이다. 한편 동일학자에 의해 집필된 여타의 개론서와 개정된 개론서, 번역된 개론서 그리고 원서들은 필요에 따라 참고하였다.

<표1>내용분석대상 개론서들

번호	년도	저자	서명
1	1955	김학묵	사회사업개론
2	1962	노창섭	사회사업개론
3	1970	김덕준 외 4인	신사회사업개론
4	1973	김영모	한국사회복지론
5	1986	장인협	사회복지학개론
6	1991	김영모	사회복지학
7	1993	김만두·한혜경	현대사회복지개론
8	1993	현외성 외 4인	사회복지학의 이해

이상의 개론서들의 내용을 분석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 놓고 내용을 고찰해 보았다. 이들 질문들은 한국사회복지학을 진단한다는 이번 학회의 대회주제와 관련이 깊은 물음들로 생각된다.

첫째, 사회사업(복지)학의 학문적 정체성에 대해서 저자들은 어떤 견해를 지니고 있는가? 사회사업(복지)을 학문으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전문분야의 하나로 보고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한 탐구는 개론서들에서 사회사업(복지)학에 대한 내용이 있는가,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인가를 통해 추구된다.

1) 예컨대 많은 대학에서 1990년을 전후한 시기에 교과과정을 개편하였고, 그 결과 타학과 학생들을 위한 교양과목 중에 사회복지관련과목들이 개설되기도 하였다. '인간과 복지(서울대)', '사회와 복지(전북대)' 등이 그 예이다. 이들 교양과목을 염두에 두고 집필된 저작들을 개론서로 볼 수 있으나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 글에서는 사회복지(사업)학과 전공학생을 위한 입문서로서의 개론서라고 생각되는 저작들만을 개론서로 보고는 의를 진행하고 있다.

둘째, 개론서의 내용과 체제를 볼 때, 이들 개론서들은 <사회사업(복지)개론>인가 아니면 <사회사업(복지)학개론>인가? 이 물음에 대한 탐구는 개별 개론서들의 제목보다는 실제의 내용을 통해서 추구된다. 타 <학문>의 개론서들에서는 대체로 그 <학문>의 정체성, <학문>의 역사(또는 학설사), <학문>의 연구방법론, <학문>의 세부연구분야, 이론에 입각하여 <학문>에서 다루는 대상에 대한 개괄적 서술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반면, <학개론>이 아닌 <개론>은 관심영역(제도, 실천, 분야 또는 현상)에 대한 기술적 설명이 주를 이루거나, 이론과 무관하게 사실을 소개 또는 나열하는 저작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개론서들의 내용에서 소주제들이 어떻게, 어느 정도 다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소주제들은 한국사회의 변동과 한국사회사업(복지)의 변동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은 개별 개론서들의 목차부분에서 소개된 소주제(대개 장, 또는 절)들의 시계열적인 변화를 통해 추구된다.

넷째, 사회사업, 사회복지, 복지국가, 복지사회 등의 주요개념들에 대해 저자(들)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사회사업 또는 사회복지라는 용어는 한국의 전통사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외래용어이다. 사회사업이란 용어는 구한말 서구의 선교사들이 전파한 것이며, 사회복지라는 용어는 해방 후 소개된 용어이다. <사회>와 <복지>, 그리고 <사업>, 거기에 <국가>라는 4개의 단어들 이 짝을 이루며 만들어 내는 <사회복지>, <사회사업>, <복지사회>, <복지국가> 등의 의미는 전공학생들에게도 혼란스러울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는 이해의 진폭이 매우 넓은 개념들이다. 이들 용어들에 대해 개론서들에서 소개되고 있는지, 소개되고 있다면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 그리고 <복지사회>, <복지국가>와 같은 개념들에 대한 저자들의 선호는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의 물음들이 제기될 것이다.

다섯째, 사회사업(복지)의 미시적 방법론들과 거시적 방법론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으며 각각의 비중을 어떻게 두고 있는가? 사회사업(복지)의 주요 방법론으로서 케이스워크, 그룹워크, 커뮤니티오가나이제이션, 사회복지행정, 정책, 조사 등이 개별 개론서에서 어떤 연관성 속에서 어떤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개론서의 저자들이 한국사회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지적·기술론적 기반으로써 중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간접적으로 파악될 것이다.

여섯째, '사회사업(복지)의 토착화' 또는 '한국실정에 맞는 사회사업(복지)'에 관한 저자(들)의 관심은 어떻게 기술되고 있는가? 저서의 내용이 단순한 외국이론과 사례들의 소개인가 아니면 한국의 사례, 한국의 경험, 역사 등을 담고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사회복지의 역사를 기술한 부분에서 한국의 역사가 어느 정도로 다루어지고 있는가, 저작에 참고한 국내의 문헌들의 비중은 어떠한가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추구하고자 한다.

이 글을 통해서 구명하고자 하는 바는 개별 개론교과서들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사회복지학교육의 문제점들이 무엇인가를 교육교재가운데서 기초적인 개론서를

통해서 고찰해보려는 데 있다.

### III. 개론서의 내용

제2절에서 소개한 분석항목에 따라 내용분석대상인 8종의 개론서 내용을 살펴 보기로 한다.

#### 1. 사회사업(복지)학 정체성의 혼란

오늘 이해경 교수의 발표에서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회사업(복지)학의 정체성에 관한 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개론서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국내 개론서들이 본격적으로 발간되기 전인 1970년대까지 개론서 교과서로 또는 참고도서(부교재)로 널리 활용된 Friedlander & Apte의 개론서에서 그들은 '사회사업은 기술이며 과학이다(social work is an art and science)'라는 표현을 쓴 바 있다. Friedlander & Apte의 말은 논리적으로 부정확한 것이다.

사회사업=기술  
사회사업=과학  
따라서 기술=과학

이들의 말은 위와 같이 분석되는데, 기술은 과학과 등치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과학으로부터 얻어지는 결과 중의 하나(예를 들어 의사의 진료행위(기술)는 의학(과학)으로부터 연유한 것이지 그 자체가 의학은 아니다)라는 점에서 이 유명한 말은 부정확한 것이다.

전문분야로서의 사회사업과 학문으로서의 사회사업을 혼돈한 Friedlander & Apte의 견해는 한국의 개론서 저자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다. 노창섭은 제 3장.사회사업이란 어떤 학문인가(73-94)에서 사회사업의 개념, 타학문분야(사회학, 심리학, 정신분석학, 의학)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사회사업 전반을 볼 때에는 그것이 결코 과학 그 자체는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사회학과 같은 특수과학에 예측되는 학문적 분야도 아니다. 사회사업은 본래 사회과학 및 기타의 지식으로부터 획득한 통찰과 숙련을 터전해서 이룩된 독특한 전문분야이다(73)"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혼란은 장인협(1986)에서도 보인다. 1981년에 [사회복지개론]을 집필발간했던 저자는 "이번에 본서를 사회복지학개론이라고 한 것은 '사회복지'를 보다 더 이론적 기반 하에 그 원리나 원칙들을 찾아내어 사회복지정책이나 서비스의 효과와 효율을 높여야겠다는 의도에서였다. 즉 사회복지를 서비스론으로 그쳐서는 안되며 보다 이론적 기반과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포괄하는 학문으로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겠다(서문iv)"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동서 <제4장 사회과학

과 사회사업>에서 이같은 입장이 관철되지 못하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사회과학은 사회현상 내지 인간관계 현상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과학인데 비해 사회사업은 어떠한 사회현상에 내재하는 사회문제에 대처해 나가기 위한 사회적 시책의 체계이다(60)”. “사회사업은 인간과 그의 상호작용성에 관한 지식을 탐구하는 사회과학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또한 사회과학적·응용과학적 전문직업이라 할 수 있겠다(61)”.(밑줄은 연구자가 덧붙임)

- 1.사회과학-연구-과학
- 2.사회사업-대처-시책의 체계
- 3.사회사업='사회과학' 그리고(and) '전문직업'

사회과학과 사회사업에 대한 장인협(1991)의 설명은 위 1., 2., 3.으로 정리된다. 1과 2는 각각 정확한 표현이다. 그런데 1과 2가 정확하다면 3은 논리적으로 부정확한 것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사회사업을 응용과학 또는 종합과학으로 보는 견해도 일부 개론서에 피력되어 있다. 예컨대 김영모(1973)는 제1장 사회사업의 의의에서 “사회복지(social welfare)는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순수과학이 아니고 사회문제(social problems)를 해결하는 응용과학(applied sciences)이며(1)”, “사회복지는 전문사회사업과 사회정책에 의해서 그 학문적 성격이 규정될 수 있을 것(5)”인데, 이의 이론적 기반은 “사회학, 심리학, 인류학, 정치학, 교육학, 철학, 의학, 생물학, 정신분석 등 제학문의 지식(9)”이라고 명확히 밝혀 두고 있다. 김영모의 이러한 견해는 1991년 [사회복지학]을 집필하는 동기가 되었다.

“사회사업 및 사회복지가 학문 뿐 아니라 실천이론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저자는 그러한 노력을 경주하면서 이제 사회복지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구성과 그 문제점 및 그 방향을 제시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그리하여 [사회복지학]이라는 개론서를 집필하기로 하였다.(머리말iii-iv)”

그러나 아쉽게도 김영모의 [사회복지학]의 본문에서는 사회복지학에 관한 언급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해 볼 때 초기 사회사업의 학문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의 혼란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이 아직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정

리된다. 그러나 다소 희망적인 조짐들도 보인다<sup>2)</sup>. 개론서들의 명칭이 사회사업(복지)개론으로부터 <학개론>으로 변화된다든지, 혹은 사회과학과 사회복지라는 교과목이 여러 대학에 개설되어 있다든지, <사회과학과 사회복지>를 주제로 한 저서들이 발간되는 사실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 2. 사회사업(복지)<개론>에서 탈피하지 못함

개론서의 명칭이 <학개론>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과 실제 그 내용이 <학개론>에 걸맞는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사회사업(복지)을 학문으로 정립하기 위해 개론서의 저자들이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고민과 노력이 개론서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논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주장도 보이고 있다.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8권의 개론서들은 실상 사회사업(복지)<개론>이며 사회사업(복지)<학개론>이라고 할 수 없다. 사회사업학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 학문의 역사나 학설사의 소개가 결여된 점, 학문의 연구방법론에 대한 관심의 미비, 학문의 연구대상 또는 연구분야의 미설정 등의 문제점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개론서들에 나타나고 있다.

일부 개론서들에서 사회사업의 개입이론, 사회과학의 거대이론들을 소개하고 있으나 그것이 사회사업(복지)학설사는 아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개론서를 펴낸 김영모는 사회복지의 이론을 <사회복지> 현상을 분석하는 것으로서가 아닌 <사회문제>에 개입·대처하는 방법을 규정짓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복지는 이론적 관점에 따라 다양한 접근방법이 존재할 수 있다. 이론적 관점의 차이에 따라 사회현상과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그것에 대처하는 방법도 달라진다. (……)이러한 관점과 그 통합에 의하여 사회문제의 원인과 대책, 즉 사회복지에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11).”

김영모의 이론에 대한 관심은 다음과 같은 표로 요약정리되어 있다.

### <표2>김영모의 '이론적 관점에 따른 사회복지의 예'

2)최근에 발간된 현의성 외(1993)에서는 제10장 사회과학으로서 사회복지학(권현수, 458-486)과 제11장 우리나라 사회복지학의 전망(현의성, 487-497) 등 2장에 걸쳐 분석대상으로서의 <사회복지현상>에 대한 독립된 사회과학 혹은 종합과학으로 사회복지학을 바라보는 저자들의 관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론적 관점	사회정책	사회사업
기능주의	고용정책(완전고용·실업보험)	심리모델(가족치료상담사업)
갈등주의	소득정책(최저임금제·법정시간제)	급진모델(사회행동·혁명)
통합주의	사회입법(사회보장·노사협약)	개혁모델(지역사회조직·직업복지)

출처:김영모(1991;14)

위 표에 제시된 이론적 관점과 그로부터 도출되는 사회정책, 사회사업 방법들의 연관도 이해하기 힘들지만, 더욱 더 이해하기 힘든 것은 기능주의, 갈등주의 등의 이론적 관점이 사회복지학에서 연구와 이론개발을 위해 어떻게 '응용'되어 왔는가, 사회복지 현상과 역사를 분석하고 기술하는데 어떻게 적용가능한가 등과 같은 <학문>의 기초로서 다루어지지 않은 점이다.

한편 현의성 등(1993)에서는 <사회복지학>의 정체성, <사회복지학>의 역사와 세부연구분야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분석대상 개론서들은 사회복지(사업) 분야에 대한 기술들로 내용의 대부분을 채우고 있다. 개론서에 따라 내용구성에 편차를 보이고 있지만 사회사업(복지) 분야에 대한 기술은 이론적인 관점이 배제된 채, 심하게 표현하자면 보건사회부에서 펴내는 [보건사회백서]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정도로 기술되어 있다. 개론서들은 한국의 사회사업(복지) 현실을 안내(guide)하는 데는 유용할 수 있어도, 사회사업(복지)학에 처음 입문한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데는 썩 유용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바꾸어 말하면 개론서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기본적으로 사회복지<개론>이며 사회복지<학개론>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다.

### 3. 외래적인 주제들로부터 현실유관적인 주제들로

이상적으로 볼 때 사회사업(복지)<학개론>에서 다룬 내용들은 사회사업(복지)학의 이론발전과 연구방법론의 발전 및 변화, 그리고 이 <학문>에서 연구대상으로 삼는 사회현상의 변화를 반영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예컨대 연구대상으로 삼는 사회현상의 변화 - 예컨대 전후구호사업에서 '삶의 질의 세계화'구상과 같은 - 가 어느 정도의 시차를 두고 개론서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거꾸로 말하면 한국의 사회사업 현상을 설명함에 있어서 한국의 실정과 전혀 동떨어진 내용들을 개론서에서 다루는 것은 미래의 발전가능성을 염두에 둔다 하더라도 썩 적절치 못하다고 할 수 있다.

개론서들의 내용에 대해서는 선행고찰이 있다. 김영모는 [한국사회복지학의 평가(1992)](6)에서 개론서의 내용을 정의, 기관, 인력, 대상, 사회정책, 복지서비스(분야), 사회사업, 자원, 이념, 이론, 행정, 역사, 기타 등의 13개로 나누어 김학묵의 개론서를 비롯한 13권의 개론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1970년 이전까지 사회복지



지개론서는 사회사업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사회복지라는 말을 공통으로 사용하고(5) (…) 사회복지의 방법으로서 그 이전에는 전문사회사업과 사회복지서비스(분야)를 많이 서술하고 있지만, 1970년대 이후에는 사회복지정책을 사회복지방법론으로서 많이 다루고 있다는(6)” 결론을 이끌어 냈다.

이 글에서는 김영모의 방법을 참조하되 개론서의 체제를 존중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 있어서는 Friedlander & Apte(1974,1980)도 포함하였다.

<표3> 사회복지개론서들의 내용구성

저자	년도	개념	역사	가치·철학·이념	복지국가	CW	GW	CO	기타방법론	행정	정책	통계조사	계획·행동·기타	분야 수	국제사회사업	교육훈련	전망
1.김학묵	1955	○	○			○	○	○		○	○			6	○	○	
2.노창섭	1962	○	○	○		○	○	○						6		○	
3.김덕준외	1970	○	○	○		○	○	○		○	○	○		10		○	
4.김영모	1973	○	○	○		○	○	○		○	○	○		7(+8)			
5.장인협	1986	○	○	○	○	○	○	○		○	○	○	○	13		○	○
6.김영모	1991	○	○	○		○	○	○	○	○	○	○	○	8(+11)		○	○
7.김만두외	1993	○	○	○		△	△	△	○	○	○	○	○	13		○	○
8.현외성의외	1993	○	○	○	○	△	△	△	○	○	○	○	○	9			○
a.Friedlander	1974	○	○			○	○	○		○	○			10		○	
b.Friedlander	1980	○	○			○	○	○		○	○	○	○	11		○	

(△ : 케이스워, 구름워, 지역사회조직론의 내용을 임상사회사업과 기타에서 부분적으로 소개)

위 표에서 볼 때 개념, 역사, 가치·철학·이념과 더불어 케이스워, 구름워, 지역사회조직론 등 사회사업의 미시적인 3대방법론이 1980년대까지 부동의 위상을 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으로 올 수록 개론서에서 다루는 주제가 다양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복지국가, 기타방법론(통합방법론, 사례관리기법 등), 정책, 사회복지 전망 등의 주제는 초기의 개론서들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은 것들이다. 반면 국제사회사업은 김학묵(1955)에서만 다루어지고 있을 뿐 이후의 개론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개론서들에서 한국사회의 변동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사회와 관련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지(바꾸어 말하면 한국현실과 무관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제도·프로그램 등을 다룬<분야>에서 다룬 내용을 보기로 하자.

<표4>개론서의 분야에서 다룬 내용들

저자	발간년도	분 야
1.김학목	1955	아동,가족,의료,정신,학교, 보호관찰
2.노창섭	1962	가족,아동,의료,정신,교정,학교
3.김덕준외	1970	생활보호사업,아동·청소년,가정,노인,심신장애인, 의료,산업,교정,재해구호,기타
4.김영모	1973	아동,가족,의료사회사업,정신,학교,교정,노동 「사회개발,사회복지행정,아동,가족복지,부녀복지,가족계획,새마을운동,시민참여」
5.장인협	1986	사회보장,아동,모자,노인,장애자,가족,의료사회사업, 정신의학적사회사업,학교,교정,산업,지역사회개발, 가족계획
6.김영모	1991	가족,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부녀,노동,교정(연금, 생활보호,실업보험,가족수당,퇴직금,최저임금제, 의료보험,의료보호,산재보험,교육,주택)
7.김만두외	1993	국민연금,의료보장,생활보호,가족,아동,노인,장애인, 정신장애,재가,모자,보건의료,교정,자원봉사
8.현외성의	1993	가족,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여성,산업,의료,학교, 군
a.Friedlander	1974	소득보장,빈곤,주택,가족,아동·청소년,공중보건, 의료사회사업,정신보건사회사업,특수인구집단,교정
b.Friedlander	1980	가족,사회보험,아동·청소년,빈곤,의료사회사업,노인, 주택,정신의료,공적부조,공중보건,교정

초기의 두 저작에서 다룬 분야들은 사회사업의 전통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아동,가족,의료,정신,학교, 보호관찰 등으로서, 이들 분야들은 이후의 개론서들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다루지고 있다. 문제는 50-60년대에 한국현실에서 의료사회사업, 학교사회사업, 보호관찰과 같은 분야가 사회사업개론서에서 다룰 만큼 발전했었느냐이다. 이에 대한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저자들의 분야선정을 이해하는 쪽으로 해석한다면 미국의 제도로써 한국사회에 소개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회사업 실천분야이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보고 소개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의 개론서가 사회사업교육을 받기 위해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켰겠는가이다. 이후에 나온 개론서들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망정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sup>3)</sup>.

한국현실과 동떨어진 분야들이 다루어진 것과는 반대로 개론서들이 집필된 각 시기의 한국의 주요 사회문제들 가운데 다루지지 않은(즉 외면된) 주제들도 있다. 예를 들어 50-60년대 외원사회사업이라든가 미망인문제, 이농민문제, 80년대 이후

3)김영모는 이와 관련하여 “외국, 특히 미국과 일본의 사회사업 및 사회복지에 관한 이론과 견해를 따르고 심지어 그것을 번역하다시피 소개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1992,6)”고 지적하고 있다.

의 철거민문제라든가 정신대문제 등 사회적인 현안문제들이 사회문제에 대한 실용적인 해결이론과 기술을 제공한다는 사회복지학의 개론서들에서 외면되었다.

한편 일부 개론서에서는 한국사회의 변동을 일정 부분 반영하여 소개하기도 하였다. 1970년대를 전후한 시기에 활발하게 추진된 바 있는 새마을 사업, 가족계획 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이 70-80년대 교과서에 수록되었다가 나중에 나온 교과서들에서 사라진 것이 그 예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1980년대 이후 진전을 본 사회복지 서비스분야 및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이 다소의 시차를 두고 개론서에 반영되었다. 최근에는 자원봉사, 재가복지 등의 분야들도 개론서에 반영되고 있다. 한국사회의 현실과 변동을 개론서에서 반영하고 있는 것은 한국사회복지학의 현실정합성 정립이라는 견지에서 발전으로 평가된다.

#### 4. 개념정의의 불일치

학문으로서가 아닌 실체로서의 사회사업, 사회복지 개념과, 이데올로기적 함의를 지닌 복지사회, 복지국가 등의 용어들이 개론서들에서 어떻게 정의되고, 또 선호되는지를 살펴보자.

초기에는 사회사업이란 용어가 널리 활용되었고(김영모,1992:6), 그 용어 속에 전문사회사업에서부터 사회정책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이 포괄되었다. 김학묵은 “사회사업은 개인, 가정, 집단, 향당의 결함을 제거하여 사회생활의 발전을 도모하며 그 결함을 예방하여 우리의 생활을 윤택케하여 인류생존의 완성을 기하는 조직적이며 연속적이고 합리적인 제활동(8)”으로 정의하고 그것의 궁극적 목적으로는 “누구나 그 일생의 경제적 보장을 자력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어 국가사회전체의 힘으로 그 성원의 일생동안에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는 복지국가를 형성하자는 것이다(17)”라고 하고 있다.

미국 사회사업연감(Social Work Yearbook 1954)을 인용하고 있는 노창섭(1962)에서는 사회사업이란 “사람들에 대하여 부여되는 전문사회적 역무이며 그 목적하는 바는 사람들의 특정한 요구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역사회를 조화시켜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맺고 희망하는 생활수준을 획득할 수 있도록 원조해 주는데 있다(79)”고 하여 김학묵과는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노창섭 이후 사회사업은 사회복지와 구분되기에 이르는데, 예를 들어 김덕준 외(1970)에서 김영모는

사회사업= “전문적 사회사업가의 기능에 의한 기술적 체계”

사회복지= “사회적 시책에 의한 제도적 체계”

로 도식화였다. 김영모는 사회사업과 사회정책이 사회복지를 구성한다(1973:14)고 하여 사회복지를 최상위개념으로 그리고 사회사업과 사회정책을 그 아래의 개념으로 설정하고 있다.<sup>4)</sup>

장인협은 사회사업은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활동으로서 개인의 사회적 기능의 향상에 목표(32)”를 두고 있고, 사회복지의 “인류의 복지를 목표로 하는 것이며 그 목표적 개념은 국가나 사회가 바라는 복지사회의 이념에 있다(32)”고 하면서 양자를 다음과 같이 도식화하고 있다.

<표5> 장인협의 ‘사회복지와 사회사업 비교’

	사회복지	사회사업
1.어의적	이상면 강조	실천면 강조
2.목적적	바람직한 사회	바람직한 인간
3.대상적	일반적	개별적
4.기능적	제도·정책(macro)	지식과 기술(micro)
5.실천적	고정적	역동적

출처: 장인협(1986) 35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을 굳이 구분하고 있는 장인협의 견해는 현외성 등(1993)에서도 재현된다.(60)

그런데 김만두·한혜경의 관점은 다소 다르다. 이들은 사회복지를 “인간의 복지를 위한 분야, 제도, 프로그램(40)”으로 보고, 사회사업은 전문사회사업으로 칭하는데 그 의미는 “이같은 체계 안에서 사회복지가 달성하고자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적 행동체계(40)”라고 보고 있다.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의 정의에 대한 개론서들의 차이는 미세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김만두·한혜경과 같이 사회사업은 사회복지체계(또는 분야, 제도, 프로그램)안에서 기능 하는 행동체계(전문사회사업)라고 할 경우와 김영모와 같이 사회복지의 상위개념으로 보는 경우, 그리고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이 어의적, 목적적, 대상적, 기능적, 실천적으로 대비되는 장인협의 경우 각각에 따라 용어사용의 맥락은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개념정의상의 불일치는 현실적인 쟁점들과도 관련이 된다. 대학의 학과명칭을 사회사업학과로 할 것이냐 사회복지학과로 할 것이냐(또 그렇게 했을 경우의 차이는 무엇이나?), 사회복지전문요원이라는 명칭과 임상사회복지사, 의료사회사업가, 사회사업(복지)대

4) 이러한 견해는 1991년 개론서에서도 보이고 있다. “사회복지의 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보장, 사회사업 등과 같이 매우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러한 개념의 통합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의 다른 개념에 비하여 넓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시책을 의미하고, 사회사업은 인간관계의 문제를 조정하는 전문적 기술로 인식하며,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적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정책으로 인식하고 있다(1)”

학협의회 등등 전문영역과 관련된 작명과 같은 문제에서부터 법률용어의 선정문제까지 중요한 현안들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이 된다.

사회사업과 사회복지의 개념정의에 있어서는 두 용어간의 관계가 문제가 된다. 복지사회와 복지국가라는 용어들에서 쟁점은 이들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 역사상 실체를 갖는 복지국가를 상징하고 이데올로기적인 함축을 담아 사용하는가 아니면 '바람직한 사회상'을 그리는 추상적인 용어로 사용하는가와 관련이 있다.

김학목과 노창섭의 경우 '바람직한 사회상'을 의미하는 용어로 복지사회와 복지국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복지국가에 대해 본격적으로 개론서에 소개한 것은 장인협(1986)이다. 장인협은 복지국가와 복지사회에 대해 설명한 후(53-58) "요컨대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정부역할을 강조하는 복지국가의 이념이 최근에 와서 약화되며 이보다는 복지사회 즉 사회전체의 책임을 강조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바 우리의 상황에서 이 이러한 복지사회구현이 보다 합리적이며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57)"라고 하면서 저자의 선호가 복지사회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중요한 것은 복지국가와 복지사회에 대해 비교적 정확히 그 발전과 부침을 설명한 후 내린 선호라는 점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장인협은 복지국가보다 복지사회가 더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한편 사회정책에 관한 다수의 저작을 집필한 바 있고, Titmuss, Robson의 저서를 번역한 바 있는 김영모(1991)의 경우 별도의 장이나 절에서 다루지 않고 이론 소개(다원주의 복지국가와 조합주의 복지국가)(23), 영국 복지국가(64) 등에서 복지국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복지국가와 복지사회에 대한 저자 개인의 관심은 제12장 사회복지의 과제와 전망에서 부분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으로 보인다.

"2천년대에는 선진국화, 복지국가화하기 위한 기초적 작업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298) (....) 2천년대는 모든 정책이 복지사회건설을 위한 것이 되리라고 생각한다(298) (....)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확립과 전문요원의 배치, 사회복지행정직렬 설치 등이) 되면 명실공히 사회복지의 전달체계 뿐 만 아니라 전문적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2천년대 복지사회의 뿌리가 내리게 된다.(299-300)"

"2천년대는 복지사회 또는 복지국가가 나타날 것이다. 비록 복지국가가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서구의 형태로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역사적·문화적 전통이 다르기 때문이고 또 이것을 추진하는 정책결정자의 자질이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300)"(밑줄은 연구자가 덧붙임)

약 3쪽에 걸쳐 김영모는 선진국, 복지국가, 복지사회라는 용어를 혼용하고 있다. 서구의 복지국가와는 다른 어떤 국가(또는 사회)가 한국의 2천년 대에 나타날 것

이라는 전망<sup>5)</sup>으로 요약되는 위의 인용문에서 연구자는 혼란과 아쉬움을 느낀다.

이상에서 살펴 본 내용을 정리하자면, 개론서들에서는 김영모(1992,5)에서 관찰한 것처럼 초기에 사회사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다가 나중에는 사회복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사업 개념의 의미가 곧바로 사회복지개념과 등치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초기 사회사업 개념은 최근에 전문(또는 임상)사회사업과 사회정책(및 행정·계획 등)으로 분화되었고, 이들을 모두 포괄하는 사회복지 개념이 상위개념으로 자리하고 있다. 복지국가와 복지사회에 대해서는 이상적인 사회상을 지칭하는 개념으로부터 다소 벗어나긴 하였으나 아직도 용어사용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5. 케이스웍에서 임상사회사업으로, 그리고 사회복지정책의 부상

사회사업 방법론으로서 흔히 케이스웍, 그룹웍, 커뮤니티오가나이제이션을 기본적인, 미시적인 3대 방법론으로 보고, 여기에 행정, 정책, 조사를 더해 6대 방법론으로 분류해 왔다. 후자의 3대 방법론은 종종 거시적인 방법론으로도 지칭된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사업 개입기술들을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명백히 미국 사회사업의 영향이다. 구체적으로 개론서들에서 방법론을 어떤 위상으로 분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개론서의 <부>, <장>, <절>, <항>의 구성을 저자의 관심비중으로 가정할 때 표에서 보듯 개론서마다 사회사업(복지) 방법론에 대한 저자들의 관심비중 또는 위상이 다르다. Friedlander 처럼 사회사업방법을 <부>에서 다룬 경우는 김만두의(1993)가 있고, 대개는 <장>, 또는 <절>에서 다루고 있다.

사회사업에서 가장 기초적인 방법론으로 간주된 케이스웍의 위상을 보면, 김학묵/(1955), 김덕준 외(1970), 장인협(1986), 김만두외(1993) 등에서는 <절>에서 다루고 있다. 노창섭은 <장>에서 이를 다루고 있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김영모(1973,1991)와 현외성 외(1993)에서는 <항>에서 다루고 있다. 사회사업방법론의 통합 및 재조정에 따라 케이스웍 자체의 명칭은 최근에 임상사회사업에 가려졌다. 케이스웍의 명칭이 임상사회사업에 가려진 현상을 두고 개론서에서 다른 방법론으로서 케이스웍의 비중이 낮아졌다고 볼 수는 없다.

---

5) 김영모는 2천년대 우리 나라에 복지국가가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복지자본주의에 기초하여 있다고 생각한다. 그 특징으로는 (1)민영화된 또는 영리추구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발달, (2)자조와 사회보장의 이원화, (3)주택·환경 등 여타영역의 복지정책과 서비스 발달(특히 주택과 청소년), (4)주민참여 활발(자원봉사, 시민운동), (5)기업의 복지재단 발달-구호사업에서 점차 광범위한 사회복지사업이나 시민운동 등 지원, (6)후기산업사회의 퍼스낼리티 해체-전문사회사업 발달, (7)통일에 대비한 사회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개발 등이 제시되었다.(300-302)

<표6>개론서들에서 사회복지방법론의 위상과 분류

지자	발간 년도	방법론의 위상과 그 분류			
		부	장	절	항
1.김학목	1955		사회사업방법	개별지도사업,집단지도사업, 향당지도사업	
2.노창섭	1962		케이스워크 그룹워크 커뮤니티오가나이제이션		
3.김덕준 외	1970		사회사업의 방법	개별사회사업,집단지도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사회조사, 사회사업행정,사회행동	
4.김영모	1973		사회복지의 방법	전통적 방법 전문적 방법 정책적 방법	상호부조,자선사업,박애사업, 자선조직,인보사업 개별지도,집단지도,지역사회 조직,사회행동 구빈사업,사회보장
5.장인협	1986		사회복지방법론	개별지도론,집단지도론, 지역사회조직론 사회복지행정,사회사업조사, 사회복지정책과 계획	
6.김영모	1991		사회복지의 방법 I :사회정책  사회복지의 방법II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의 방법III :사회사업	소득보장정책, 의료보장정책, 교육정책,주택정책 가족,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부녀,노동,교정 자조사회사업  전문사회사업  급진사회사업	연금, 생활보호,실업보험, 가족수당,퇴직금,최저임금제 의료보험,의료보호,산재보험  상호부조,자선사업,박애사업,재 해구호,자원봉사 개별지도,집단지도,지역사회사 업,통합방법론,사회행동
7.김만두 외	1993	사회복지 방법론	직접적 개입방법론 지원적개입방법론 간접적개입방법론	임상사회사업,지역사회사업 사래관리방법,사회복지조사 사회복지행정,사회복지정책 과계획	
8.현외성 외	1993		사회복지의 방법	직접적 사회사업실천방법 지원적 개입방법 간접적 개입방법	사래관리방법,사회복지조사 사회복지행정,사회복지행정 및 계획
a.Friedla nder	1974	social work processes	.social casework .social work with groups .c. o. .ancillary social welfare processes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social welfare research	
b.Friedla nder	1980	social work processes	.direct services in S.W.  .indirect services in S.W.  .social welfare support services and research	.intervention at the individual level, at the family level, at the group level, .intervention at the organizational and institutional level at the community level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social welfare research	

사회문제에 대한 거시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복지)정책의 위상을 보면, 김학목(1955), 노창섭(1962),김덕준외(1970)까지는 방법론으로 소개되지 않고 있다.

사회(복지)정책이 방법론으로 소개된 것은 김영모(1973)에 와서인데, 여기에서는 구빈사업과 사회보장이 정책적 방법을 구성하고 있다. 장인협(1986)에서는 사회복지정책과 계획으로 케이스워 등과 나란히 다루고 있다. 김만두 외(1993)와 현외성 외(1993)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이 간접적 개입방법론의 하나로 다뤄지고 있다. 이들의 경우에도 그 위상은 임상사회사업과 동등하다<sup>6)</sup>. 사회복지정책이 초기 개론서에 소개되지 아니하다가 김영모(1973) 이후 소개되었다는 점에서 개론서에서의 상대적 위상은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사회사업의 방법에 무엇이 포괄되며, 그들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김학목과 노창섭은 케이스워, 그룹워 및 커뮤니티오가나이제이션을 동등한 위상에서 방법으로 포괄하고 있고, 김덕준 외(1970)와 장인협(1986)에서는 약간 다르긴 하지만 소위 '6대 방법'을 동등하게 포괄하고 있다. 1973년에 전통적 방법, 전문적 방법, 정책적 방법으로 분류했던 김영모는 1991년에는 이를 사회정책, 사회복지서비스, 사회사업으로 나누고 있는데, 특징적인 것은 급진사회사업이 사회사업<장>의 하위방법으로서 자조사회사업, 전문사회사업과 동등한 위상을 점하고 있다는 점과, 사회복지서비스가 <장>의 위상을 지니는 방법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이다.

Friedlander(1980)에서 부분적으로 힌트를 얻은 것으로 보여지는<sup>7)</sup> 김만두 외(1993)에서는 케이스워, 그룹워, 커뮤니티오가나이제이션 등의 용어가 축소되고 대신 임상사회사업, 사례관리방법 등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현외성 외(1993)는 김만두 외(1993)를 그대로 원용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초기의 3대방법론에 대해 과중한(?) 비중을 두었던 것로부터 점차 탈피하여 정책이나 행정, 조사 등이 강조되었고, 최근에 이르러서는 3대방법론의 통합 또는 재조직화가 개론서들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문제는 저자들마다 방법론의 분류체계가 다르다는 점이다.

6) 사회문제에 대한 거시적인 접근방법인 사회복지정책을 임상사회사업과 동등하게 자리매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정책과 임상사회사업간의 간극은 사회복지방법론 분류에서 평면적으로 동등한 위상에서 분류할 성질의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이런 논란과 의문은 사실 이 글의 주제를 넘는 것이다.

7) 김만두 외(1993)에서 방법론을 위 표와 같이 분류하게 된 데에는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적 변화, 사회복지요구의 변화, 지식의 증대, 사회복지제도, 기구의 확대, 사회복지의 행정, 경영의 전문성, 사회복지에 대한 조사, 평가 등의 필요성을 감안하고 지금까지 발전되어 온 사회복지방법론에 관한 연구결과도 존중(265-266)”한 것이라 한다. 7가지 변수들이 방법론 분류에 활용되었다는 설명인데, 매우 힘든 작업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분류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 6. 개론서의 서구적 편향

‘사회사업(복지)의 토착화’ 또는 ‘한국실정에 맞는 사회사업(복지)’에 관한 저자(들)의 관심은 저작에 참고한 국내외 문헌들의 비중은 어떠한가, 사회복지의 역사를 기술한 부분에서 한국의 역사가 어느 정도로 다루어지고 있는가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참고문헌의 비중을 살펴보기로 한다. 김학목(1955)에서는 각주나 참고문헌의 제시없이 서언에서 아래와 같은 3권의 저서를 참고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The Field of Social Work(Auther E.Fink)  
Public Welfare Administration(R.Clyde White)  
Social Work Year Book 1954(Russel H.Kurtz)

이들 3권의 저서는 모두 미국에서 발간된 것이다<sup>8)</sup>.

김학목은 미국의 서적만을 참고하였다고 밝히고 있지만 여타의 개론서들에서는 구미의 저작 이외에도 한국에서 발간된 저작과 일본서적을 다수 참고하고 있다. 개론서들에서 참고한 문헌들의 활용상황은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다.

<표8>개론서 참고문헌의 수와 그 비율

저자	년도	국내문헌	일본문헌	구미문헌	참고문헌수	비 고
1.김학목	1955			3	3	서문에 근거
2.노창섭	1962	12(10.0)	11(9.2)	97(80.8)	120	권말 참고문헌에 근거
3.김덕준외	1970	25(15.2)	35(21.3)	104(63.4)	164	장(절)의 참고문헌에 근거 (중복계산)
4.김영모	1973	102(59.3)	6(3.5)	64(37.2)	172	각주에 근거(중복계산)
5.장인협	1986	29(23.4)	10(8.1)	85(68.5)	124	권말 참고문헌에 근거
6.김영모	1991	59(46.5)	2(1.6)	66(52.0)	127	장의 참고문헌에 근거 (중복계산)
7.김만두외	1993	123(32.8)	74(19.7)	178(47.5)	375	각주에 근거(중복계산)
8.현외성외	1993	144(42.4)	42(12.4)	154(45.3)	340	장의 참고문헌에 근거 (중복계산)

8) 제3세계 사회사업 교육문제를 연구한 Nagpaul,H(1993)에 따르면 인도의 사회사업교육에서 미국문헌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활용되었는데, 개론서로서 Fink(1956), Friedlander(1955, 1964, 1974), Stroup(1953), Witmer(1942) 등이 그것들이며, 사회사업의 미시적 방법론과 관련하여 케이스워 교재로서 Biestek(1957), Hamilton(1959), Hollis(1966), Parad(1958), Peitman(1957) 등이 활용되었으며, 그룹워 교재로서 Konopka(1963), Trecker(1955), Wilson & Ryland(1949) 등이 활용되었고, 지역사회조직론 교재로서 Murphy(1956), Dunham(1958), Millan(1954), Ross(1955) 등이 활용되었다고 한다. Nagpaul,H(1993), 'Analysis of Social Work Teaching Material in India : the need for indigenouse foundations' in International Social Work, Vol.36, No.3, pp.207-220.

개론서마다 참고문헌을 제시하는 방식이 다르므로 해서 위 표에 나타난 수치들은 상대적인 비중을 대변하는 데 제한적인 의미를 지닌다. 표에서 보듯 최근에 한국문헌을 활용하는 정도가 높아졌으나, 아직도 참고한 문헌의 절반정도가 구미의 문헌이고, 저자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일본문헌도 적지 않게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미의 사회사업이 한국보다 먼저 발전하여 한국 사회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구미문헌을 다수 참고하는 것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우리와 유사한 맥락에서 서구 사회사업을 받아들인 일본의 저작들이 다수 활용되고 있는 현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한국 사회복지학이 한국의 현실과 역사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가를 대변하는 또 다른 지수는 각 개론서들에서 거의 공통으로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부분에서 한국의 사회복지사가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다루어지고 있는가를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표9> 개론서에서 한국의 역사를 다룬 비중

단위:쪽수(%)

저자	년도	한국	외국	비고(수록순서와 대상국가)
1.김학목	1955	0(0.0)	10(100.0)	
2.노창섭	1962	28(45.9)	33(54.1)	구미,한국
3.김덕준외	1970	19(29.2)	46(70.8)	한국, 구미
4.김영모	1973			사회사업 역사를 다루지 않음
5.장인협	1986	6(20.7)	23(79.3)	구미(구빈), 영국, 미국,한국
6.김영모	1991	10(43.5)	23(56.5)	영국, 미국, 한국
7.김만두외	1993	28(28.6)	70(71.4)	영국,미국,일본,한국
8.현외성외	1993	6(40.0)	9(60.0)	영국, 한국

표에서 보듯 사회사업사를 다루지 않은 김영모(1973<sup>9)</sup>)를 제외하면 한국의 역사를 기술한 비율은 0%에서 45.9%까지 다양하다. 한국의 사회사업사에 대해 가장 비중을 둔 것은 노창섭(1962)으로 거의 구미사회사업사와 동등하게 다루고 있다. 노창섭은 시기적으로는 삼국시대부터, 고려, 이조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내용 면에서는 구빈, 권농, 종교, 개인적 시혜, 각종 창제와 보, 의료, 계, 향약 등 매우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양적으로 노창섭과 비슷한 김만두외(1993)에서 조선말까지의 한국사회복지사를 단 3페이지로 압축한 것과 비교해 볼 때, 한국 전통사회의 사회사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이를 개론서에 담은 노창섭의 '한국 사회사업 뿌리 찾기' 의욕은 높이 평가된다<sup>10)</sup>.

9)김영모(1973)는 제3장 사회복지의 방법, 제1절 전통적 방법에서 (1)상호부조를 설명하는 가운데 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2)자선사업을 설명하는 가운데 불교의 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사회사업사에서 다룬 대상국가의 경우 대부분의 개론서들이 구미(주로 영국과 미국)국가와 한국을 다룬 데 비해, 김만두 외(1993)에서는 추가로 일본을 다루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개론서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외국 사회사업사를 소개하면서 선진국가들의 사회사업사만을 수록하는데 그치고, 제3세계권의 사례는 소개하지 않고 있다.

#### IV. 맺는 말

이상 6가지 측면에서 한국 사회사업(복지) 개론서들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사회사업(복지)학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아직도 극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사회사업을 응용사회과학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전문분야라고도 하는 등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언명들이 일부 개론서에서 나타나고 있다.

둘째로는 개론서들은 이 학문분야에 입문하는 학생들에게 <학문>의 역사나 학술사, 학문연구방법론, 학문의 연구대상 및 연구분야 등을 안내(introduce)하는 사회사업(복지)<학개론>의 성격보다는, 이론과 거의 무관하게 사회사업(복지) 현실을 알려주는 사회사업(복지)<개론>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셋째로 개론서의 분야소개에서 사회사업교육 초기에 비해 현실정합적인 내용들이 보다 많이 반영되었지만 아직도 한국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들을 일부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한국사회의 주요 사회문제들이 외면되기도 하였다.

넷째로 사회사업, 사회복지, 복지사회 및 복지국가와 같은 주요개념에 대해 학자간의 개념정의 불일치와 용어사용의 혼란이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

다섯째로 사회사업 교육초기에 비해 사회사업(복지)방법론 분류가 다양화되고 있고, 방법론으로서의 케이스웬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의 위상이 높아졌다. 그러나 학자들 간의 분류체계 불일치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개론서들에서 한국의 역사가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고, 한국의 문헌보다는 구미의 문헌이 더 많이 참고되고 있고, 일본문헌들도 적지 않은 비율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외국 사회복지사에서 서구제국의 사회복지사에 치중하고 제3세계 사회복지사는 전혀 다루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여러 개론서들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적지 않다. 내용면에서 대부분의 개론서들의 내용이 지나치게 난해하다든지, 대학원 수준에서 다룰 내용들이 일부 개론서에 소개되어 있다든지, 개론서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논문들을 <짜깁기> 식으로 개론서에 포함시켰다든지, 법령과 서식 등을 수록하는 과잉친절(?)을

---

10) 1995년 2월 16일 숭실대학교에서 열린 '제2회 한미사회사업교육자세미나'에서 노창섭은 자신이 한국사회사업의 뿌리를 찾기 위해 기울인 노력과 그 증거가 1962년 개론서에 담겨 있다는 점을 연구자에게 강한 인상으로 심어 준 바 있다.

보이고 있다든지, 개념·역사를 앞머리에 소개하고 곧바로 케이스월에 대해 설명하는 체제로 구성되어 앞뒤 연결이 어렵다든지 등의 문제점들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분석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실상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개론서들이지만 이들 개론서는 한국 사회사업(복지) 교육반세기를 이끌어 온 중요한 저작들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의 사회사업학계가 이룩해 낸 공동의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에 대한 책임소재가 개론서의 저자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한국사회복지교육의 발전과 <한국사회복지학개론>의 정립을 위한 연구자의 견해를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로 사회복지학이 학문이나 아니면 전문분야냐 하는 논의가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질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 논의의 결론으로 사회복지학은 학문이다 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개론서들은 사회복지<학개론>의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관련 분야와 사실과 실천과 사례들의 단순한 소개에서 벗어나, <학문>의 정체성을 밝히고, 학문의 역사와 학설사를 정리하며, 학문연구방법론과 연구분야, 경향 등 <이론>에 입각하여 분석대상으로서의 <사회복지현상>(현의성 외,1993)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으로 개론서의 내용이 채워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둘째로, 한국사회복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외국의 역사와 이론과 방법론을 무비판적으로 소개하는 한편<sup>11)</sup>, 한국사회의 주요 사회문제와 이슈들을 외면함으로써 전공학생들에게 또는 타학문분야의 학자들에게 ‘낯설고 이국적인’ 또는 ‘그저 좋은 일하는’, 또는 ‘강단과 현실이 분리된’ 학문분야라는 인상을 심어 온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 이론과 모델을 도입·소개하는데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함은 물론 실무에서의 실험·실천 결과들이 학계에 환류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며, 한국사회복지사에 대해 보다 큰 관심이 기울여져야 할 것이다.

셋째로, 학계에서 보다 많은 비판과 토론의 장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개론서를 포함하여 모든 지적인 작업에 대한 학계의 검증작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회지에 ‘서평’란을 두는 것은 그 한 방법일 수 있다. <끝>

---

11) 이와 관련하여 본론에서 미루어 왔던 외국(구미와 일본) 개론서의 번역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번역된 개론서는 외국 사회복지학의 연구경향과 발전상을 전해 준다는 점에서 대단히 값진 참고자료들이다. 그러나 번역서를 개론 교과서로 활용하는 것은 사회복지학의 현실정합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 <참고 : 개론서> (출간년도순)

- 김학목, [사회사업개론], 서울:한국사회사업연합회, 1955  
노창섭, [사회사업개론], 서울:새글사, 1962  
김덕준 외, [신사회사업개론], 서울:한국사회복지연구소, 1970  
구자현, [사회복지론], 서울:한국사회복지연구소, 1972  
김영모, [한국사회복지론], 서울:법문사, 1973  
Naomi Brill 저, 장인협·문인숙 공역, [사회복지원론] 서울:한국사회복지연구소, 1977  
岡村重夫 저 송정부 역, [사회복지학] 서울:학문사, 1980  
장인협, [사회복지개론], 서울:한국사회개발연구원, 1981  
김만두, [사회복지총론], 서울:홍익제, 1982  
김상규·전재일 외 공저, [사회복지론], 서울:형설출판사, 1982,(개정)1990  
김영모·남세진·신섭중 공저, [현대사회복지론], 서울: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82  
嶋田啓一郎 저 윤진현 역, [사회복지론], 서울:문우사, 1983  
W.A.Friedlander & R.Z.Apte 저, 손준규 역, [사회복지개론], 서울:법문사, 1985  
岡村重夫 저 송정부 역, [사회복지원론] 서울:경진사, 1986  
岡村重夫 저 송정부 역, [사회복지학] 서울:법지사, 1986  
장인협, [사회복지학개론], 서울:서울대학교출판부, 1986  
전준우, [사회복지학개론], 대구 : 효성여자대학교출판부, 1986  
大塚達雄 외 저, 송정부 외 역, [사회복지] 서울:대영문화사, 1988  
김영모, [사회복지학], 서울 : 한국복지정책연구소출판부, 1991  
孝橋正一 저 중앙사회복지연구회 역, [사회사업의 기본문제], 서울:이론과실천, 1991  
손준규 편저, [사회복지개론:복지사회학], 서울:대학출판사, 1992  
신건희, [사회복지론], 서울:법문사, 1992  
岡村重夫 저 송정부 역, [사회복지학총론] 서울:이론과 실천, 1992  
김만두·한혜경 공저, [현대사회복지개론], 서울 : 홍익제, 1993  
현의성 외, [사회복지학의 이해], 서울:유풍출판사, 1993